

강원도 동해전원교회 도와주세요 긴급SOS

폭설로 교회 무너져 구제의 손길 기다리고 있어

규제된 법 탓, 피해보상 없다. 정부와 동해시 팔짱만 끼고 있어

교회와 주민들 식수는 물론 불편한 잠자리로 구제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실정

강원 동해시 어달동 16-47번지에 십자가를 밝힌 동해 전원교회는 지난 2월11일부터 몇 일간 2m에 가까운 폭설로 교회 120명 전체가 완전 봉고 되었다. 교회라는 명칭 하나로 동해시와 정부로부터 보상이 제외 되어 있어 안타까운 아닐 수 없다.

동해전원교회는 미자립 교회로써 자체 재건하기란 불가능 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교회를 초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구한다며 본 CJTN방송과 본 신문에 긴급요청을 해 왔다.

김 목사는 1997년에 동해에 십자가를 세워 빛을 밝히면서 2007년도에 새롭게 재건축했다. 김 목사가 손수 지은 교회로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래도 김 목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



▲ 망연자실하여 폭설로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김대성 목사

을 것을 믿는다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한편 마음이 심란하다. 어느 곳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

고 아파했다. 피해를 입은 동해전원교회는 현재 엄청난 눈을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해시와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이 없어 허탈한 마음뿐이다. 이번 눈으로 인해 피

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달래면서 동해시와 정부로부터 해택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무너진 교회 자재를 치우는 일이 걱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시급하다. SOS를 외쳐본다. 김대성 목사는 적은 컨테이너에서 혹한 추위를 참아가며 기거하고 있다. 김 목사와 주민들은 동해시와 정부의 절실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정부의 규제된 법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피해를 입은 교회와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아려 주길 바라고 있다. 김대성 목사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길 바라며 SOS 를 요청해 왔다.

연락처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16-47 예장(동해전원교회) 담임목사 김대성 휴대전화 011-377-4532 CJTN방송(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010-35468-6574 070-8230-0032

CJTN방송,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열어

지저스타임즈 CJTN방송(사장 소진우 목사)은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전원중 앙교회(담임 정기환 목사 /본지 상임이사)소예배실에서 2011 2차 이사회를 열어 본사발전과 해외 14개국 지사, 전국 17개 지사와 이사진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본지 사무총장 장창윤 목사 사 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기획실장 신언창 목사(웨신총회)가 기도를, 강신숙 목사(기연목부협 대표회장/본지 운영이사)의 특송이 있었 으며,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 웨신신학교 학장, 본지 목포 지사장)는 출14:5~14절을 인용

“두려워 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본사 현황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전담 순천시 저전동 소재에 본지 순천지사가 발족되었다며 소개하고 지난 2월에도 10여명의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를 한 후 고문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는 상임이사 정기환 목사의 기도로 개회되어 전국지사와 해외지사의 현황을 보고하고,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무총장 장창윤 목사의 보고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CJTN 방송 www.jtntv.kr 시청률이 하루에 2800-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문서선교를 위하여 모두가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론 방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을 다짐했다. 지난해는 대전, 광주, 목포, 서울, 강원, 춘천, 하남, 홍성, 수원지사 등 전국지사 순회를 하며 기도회를 가졌다. 본 신문사는 매월 이사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오는 4월 이사회 및 기도회는 경기 동부지사 성남에서 가질 예정이다.



▲ CJTN신문방송 이사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0-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ntv@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부천뉴타운재개발 교회목회자 구속수감

부천 시청서 점거농성 중 박모 목사 외 2명 소환..박 목사 구속

3월 2일 새벽5시 부천시청 복도에서 부천뉴타운개발을 반대하는 부천뉴타운비대위 소속 주민 15명과 부천기독교 총합연합회 재개발대책위원회 소속 목회자 2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은 무자비하게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잘못된 개발정책에 항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즉각 중지될 것을 수차례 시당국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부천시의 성의없는 태도와 부천시장의 무능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를 가졌고 시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장실이 있는 복도를 점거하게 되었고 주로 노인들과 목회자들이 교대로 농성을 하면서 평화롭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힘있는 노인들과 목사들은 강제 연행 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운데 우리는 부천시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성자들의 대다수는 고령자들과 목회자들이었고 시장을 위하여 모두가 두 무릎을 꿇고 있었던 뿐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형장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평화롭게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통해 강제연행하도록 한 부천시장의 처사는 주민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며 부천시의 요구에 꼭두 새벽에 농성자들을 귀가 조치하지 않고 강제 연행 한 것을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다. 만일 부천시장이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였 다면 농성이 장기화 되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들도 고령의 불편한 몸으로 차가운 시청복도에서 밤을 지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일체의 대화 진전을 거부한 채 농성자들의 강제 연행한 조치는 주민들 생존권을 무시한 잘못된 처사이며 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부천뉴타운 반대 주민 및 목회자 강제연행을 규탄하고 있다.

섬겨야 할 시장의 모습으로서 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다.

또한 부천원미경찰서 서장 또한 아무리 부천시의 정당한 요청이 있다할지라도 꼭두새벽에 노인들과 목회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처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부천시의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강력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부천시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의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5만 한국교회와 함께 부천시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부천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산을 강탈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무자비한 뉴타운 재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원주민의 재 정착과 종교시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개발 정책이 실시되도록 부천시와 주민들간의 진정성을 가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강력 요구한다.

이날 시위 후 부천시기독교 총연합회 장철희 목사를 비롯해 한기총 김재경 재개발위원, 한장총 강사근 장로, 주민

대표 이옥경씨등 7명은 김만수 부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 재개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답과 공권력투입에 대한 사과 등을 받아내고자 했으나 김만수 부천시장은 “현재 부천은 광명시와 함께 경기도내에서 재개발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면서 “안양과 평택, 안성은 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재개발 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로선 도와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님과 해법을 찾아나가려고 한다. 뉴타운지역 내 종교용지 대체부지 제공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표명되진 못했었다.

공권력남용에 대한 시위에 이어 김만수 부천시장과 직접 면담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6일 오후 박 모 목사가 결국 구속됨에 따라 부천 뉴타운재개발지역에 대한 시 측과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문제 해결을위한국민운동(33개 단체) 공동사무국 02-2266-8351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2011년 제 3차 치유 부흥사 연수 개원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엄기호** 목사



운영총재 **최검손** 목사



대표회장 **민충만** 목사



실무부총재 **조나단** 목사



상임부총재 **설동욱** 목사



상임부총재 **장사무엘** 목사



상임부총재 **김기대** 목사



상임부총재 **김기성** 목사



운영부총재 **장상길** 목사



운영부총재 **김평세** 목사



운영부총재 **조항호** 목사



운영부총재 **장준환** 목사



공동회장 **김석용** 목사



공동회장 **한바울** 목사



사무총장 **임택수** 목사



여성상임회장 **강현숙** 목사



여성상임회장 **임효순** 목사



여성강사단장 **이영순** 목사



하와이 지회장 **김재원** 목사



터키 지회장 **소방은** 목사



러시아 지회장 **최광순** 목사

- 강사진 : 피종진 목사, 엄기호 목사, 최검손 목사, 민충만 목사, 조나단 목사, 장사무엘 목사, 김평세 목사, 장창윤 목사, 김동국 복음가수협회장 등
- 특 전 : ·수료자는 전원 치유 부흥사로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줌. ·수료자 전원에게 치유 부흥사 수료증 수여함.

- 일시: 2011년 4월14일(목)－16일(토)
- 장소: 세계치유선교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4-4)
- 대상: 목사(사모), 기도원 원장, 강도사, 전도사, 신학생 등
- 연수비: 10만원 (국민 130-89-13136-세계치유선교센터)
- 문의: (032) 329-9182 (핸) 010-9282-5873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개강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정기환 목사)는 3월 8일(화)오후2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에서 2011년 1학기 개강예배를 드려졌다.

학장 정기환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박종철 목사의 기도 있었다.

운송회 목사는 구약성경 사사기 7:4~8절의 말씀을 봉독했으며, 재학생들의 특송이 들려졌다. 정기환 학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정 학장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기도는 300명 용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것이며, 잘 준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잘 배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본교 기독 무용학과에서 준비한 특별위임이 있었으며, 중경총회장 장창수(오산광성교회)가 축사를,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의 권면이 있는 후 학장 정



▲ 학장 정기환 목사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개강예배

환 목사는 이번 학기 교수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어 교가를 제창하고, 이사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정기환 학장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및 캐나다 크리스천 대학의 2011년도 봄 학기가 은혜 중에 개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하고 본교는 웨신총회 직영신학교임을 소개했다. 또한 캐나다 크

리스천 대학은 북미 보수개혁신학의 요람으로 목회자 최고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본교는 유능한 교수진과 행정력, 평생교육원 및 사단법인 등 배후의 기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본교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학업에 정진해달라며 격려하고 인사말씀을 전

했다.

한편 학장 정기환 목사는 3월 21일부터 한주간 미국 yuin대학교 초청으로 출국, 웨신신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교회의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귀국한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사 일정은 주야간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세한 것은 phone (050)5555-9191-2, (032)323-5552

웨신 서울찬양신학연구원 졸업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인준 서울찬양신학연구원(원장 장창윤 목사)은 지난달 26일(토) 오전 11시 2011 학년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서울시 구로구 구로 5동 본교에서 거행되었다. 교무처장 정태종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학생처장 이순옥 박사의 기도와 학장 김명혜 박사는 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2절을 봉독하고, 졸업생 오선연 찬양선교사의 색소폰 연주가 있는 후 원장 장창윤 박사는 "다시 새로워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장학생을 위한 특별인급 모금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자(Master of Prize Clinic in Honorary): 유모현, 송정숙, 김형숙, 정원도, 김동화, 김미복, 김재규, 전문과정(Specialized Course): 최인순, 오정식, 1급과정(Intermediate Course): 장운성, 오연실, 아선연, 원용국, 김은혜, 재갈경은, 이영남, 한은매, 김혜영, 김수장, 김주희, 2급과정(Elementary Process): 임은란, 황보혜경, 이희재, 박선주 등이며, 수상자는 공로에 이순옥, 유모현, 장학생 김형숙, 총재 오정식, 원용국, 원장상 송정숙, 오선연, 모범상 최인순 황보혜경, 대표회장상 정원도, 여성회장상 김동화, 후원회장상 김은혜 등이다.

이어 이사장 대표회장 정민철 박사가 축사를, 원장 장창윤 박사의 훈사가 있었으며, 총학생 회장 정동화 찬양선교사가 기념품을



열린찬양신학연구원 교수진 단체기념



웨신총회(인준) 열린찬양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전달하고 후원회장 정기남 박사(본지 대표이사, CJTN인터넷신문 방송)축도로 마쳤다. 웨신총회 인준 서울찬양신학연구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설교와 찬양의 실기교육,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음용무료교육,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찬양치유 무료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의 : 02)862-3181, 3191 hp 010-5678-9950

하나님의 축복이 북녘에, 남북이 번영의 길 찾자

이대통령,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의 가교역할이 되어주길 희망"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내외는 3일 (목)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국민의 안녕과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위대한 백성이 만드는 위대한 나라'를 주제로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의 설교와 「국민통합과 경제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됐다. 이날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회장님들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조찬기도회가 되었다는데,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선진일류국가로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해져야 된다면,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철학적 인프라인 공



국가조찬기도회 예배드리는 참석자들

정사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를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하고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국회의원,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홍원 합참장관, 박정호 부총리, 각각 △대통령과 국가발전 △경제번영과 민족화합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한기총 자위원 대표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제언하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약 3분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대회장인 황우여 의원은 "제헌국회에서 시작된 기도의 전통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회조찬기도회로 이어지고 다시 대통령과 함께 드리는 국가조찬기도회로 발전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공평한 정의가 감당이 되고 평화로운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자"고 인사했다.

이윤리 우제창 의원은 "우리가 배풀어 주신 축복들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또한 이날 기도회에는 국내 교계지도자와 성도들을 포함해 국외에서도 세계기독교원연맹 소속 국회의원과 외교관 등 전 세계 30개국 해외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해외 지도자들은 국가조찬기도회 다음날인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제선조찬기도회가 기도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68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27(부)~2(수) 1(화) 오전 3(목) 오전 3(목) 오후 4(목) 오후 6(부) 저녁 7(월)~10(목) 10(목) 오후 11(금) 오후 13(주)~18(수) 15(화) 오후 17(목)~18(금) 19(토) 오후 20(주) 오전 21(월) 오전 21(월)~23(수) 24(목)~27(주) 28(월)~31(목)

서울 진일교회(김명혜 목사) ☎(02)2202-9919
삼일절 기념 한민족통일기도대성회, 장소: 기독교회관
주최: 세계기도운동총연합회(대표회장 한정석 목사)
국가조찬기도회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자랑스런 연세인 시상식, 장소: 연세총동문회관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록 목사)
목회실천연구위원회 피종진 목사
충주만민소복음교회(이수희 목사) ☎(043)883-7881
구미 밝은빛교회(이철영 목사) ☎(054)442-1793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열림동 기공예배 ☎(041)882-2211
미국 Henderson 대학교 목회대학원 (총장 Dr. Berk) 원장 피종진 목사
한국지역 목회연구세미나 장소: 서울 구로반석교회 ☎(02)864-9904
서울 가성교회(노영수 목사) ☎(02)400-8580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황승룡) CRC 강연
제163차 해외성회(163rd Overseas Assembly)
일본(Japan) 오사카 사랑기독교원(원장 조영길 목사) ☎(090)6204-0971
일본(Japan) 신교대학교(박현진 목사) ☎(078)576-0643
일본(Japan) 오사카 사랑교회(조미경 선교사) ☎(090)3162-6913
일본(Japan) 동경 재일기독교 목회자 세미나
일본(Japan) 나라다 갈렙신학교(원장 김태일 목사) ☎ 070-8825-9118
중국(China) 사천성 청도한인교회(육동준 목사) ☎(134)0648-4962
아주 새미전국제복음사(도원장 김형순 목사) ☎ 016-9269-0191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될지이다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동과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광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종성 - 감절의 선교

장로 : 박광순, 김해자
강도사 : 김성임
전도사 : 오정순, 임시랑, 최원희, 박애스터
합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연합 성회 및 제2기 연수

총재 이재갑 목사	자문 정기남 목사	자문 전성민 목사	부총재 박길찬 목사	부총재 김효순 목사
대표회장 연수원장	전영위원장 사무총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	예능위원장 예능부장	운영서기 실무회장
이재원 목사	박영민 목사	대비서김복자	신영숙 목사	전진성 목사
운영회계 수석공동회장	운영총무 공동회장	~~ 조직 및 회원 ~~ 총재 이재갑 목사 부총재 박길찬 김효순 목사 자문 전성민 정기남 목사 대표회장(연수원장) 이재원 목사 사무총장 박영민 목사 상임위원 대비서 김복자 예능부장 신영숙 목사 수석실무회장(서기) 이영수 목사 실무회장 전진성 정성태 이상영 목사 수석공동회장(재무) 김부경 목사 공동회장 윤순란 김기철 김인순 송준목 박영영 목사 수석총무 고한나 목사 강사 조현희 유영현 윤철식 최대영 이창훈 조봉수 한사리 안병창 전복실 목사		

◆연수 장소: **김천 예수원**(부총재 박길찬 목사)
(054) 439-3353, 017-527-9191

◆일시: 3월 14(월) ~ 17(목) 일 오후 3시부터 목 저녁까지

◆준비물: 성경찬송,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단한 침구

◆연수비: 10만원(숙식, 교재비 포함)

◆오시는길
· 열차 - KTX, 무궁화, 새마을호 타고 김천역 하차(전화요망)
· 자가용 - 김천1.C→여모주유소(상주방향7분지점)→200m지점 예수원 간판→예수원(1.5km지점)

◆문의: 사무총장 박영민 목사 (010-2080-0651)
※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님들을 모집합니다.

★후원: 저지스타임즈(www.jtntv.kr, CJTN방송)
세계로개혁신학·신대원(학장 Dr. David Kim 010-2802-3928)
신·편입생모집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랑**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선양**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봉주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수요예배	오후 7:30	WWW영재교회
알파과정	오후6(주일)	중 · 고등부
디사이러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9:30(주일)
		오후 7:30(토)

오산시 영동로42번지 양주교회에서 방송
Tel : 011-378-9349
신명성당 : 010-25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찾아오시는길
주요 고속도로
주요 도로
주요 도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시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야회: 오후 9시

월 · 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부천선교교회
공공기관
신도
초등학교

임마누엘 영성원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밀알복지재단과 씨데이(Cday)가 ‘지연이에게 희망을’

씨데이(Cday)가 함께하는 나눔소셜기부 캠페인씨데이(Cday)가 함께하는 나눔소셜기부 캠페인

“밀알복지재단, 소셜커머스 씨데이(Cday)와 나눔소셜기부 캠페인 진행”“씨데이(Cday)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치연 어린이를 돕는다”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 이사장 홍정길)과 소셜커머스회사 씨데이(www.cday.co.kr, 대표 고혜준)가 나눔소셜기부 캠페인을 펼친다. 나눔소셜기부란 밀알복지재단에서 주최하여 기부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의 캠페인성 기부이다. 이번 소셜기부를 통해 씨데이는 상품을 팔고 수익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부금을 위한 기부를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앞으로 씨데이는 정기후원자 1명 당 0명원을 후원하고 기부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판매수익의 1%를 후원하며 기부금을 통한 사

용내역 및 진행사항을 씨데이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혔다.

소셜커머스회사 씨데이는 캠페인을 통해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치연 어린이를 돕는다며, 지연이는 태어나서 10개월 경 뇌결핵을 앓았고 그 후로 뇌병변장애를 얻어 현재는 사시가 심해 가까운 거리의 사물도 분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중국국적을 가진 지연이의 가족은 중국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국으로 입국을 했다. 하지만 한국국적이 아닌 관계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 경제여건상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사지마비이며 양쪽 팔과 다리에 강직이 심해 지속적인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씨데이는 안타까운 지연이의 치료비 마련을



▲ 이치연 어린이

위해 홈페이지에 소셜기부페이지를 만들고 후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씨데이(Cday)의 고혜준 대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 깊은 캠페인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며

소셜기부캠페인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홍보 담당 김미란 (070-8708-1234) 후원 계좌 : 754-01-0001-141(국민은행, 밀알복지재단)

더 풍성해지는 사랑과 행복의 열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KBS한국방송과 2011년 사회공헌 사업 협력 진행하기로 해



▲ 협약한 후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3월 8일(화) 오후 3시 여의도 KBS본관 6층 임원실에서 KBS한국방송(사장 김인규)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 해 동안 사회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다. 전국의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재단과 공영방송의 협력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KBS 한국방송 김인규 사장은 “한 끼 식사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적극적인 나눔’을 공영방

송인 KBS가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로 KBS가 지닌 영향력과 수많은 이들의 기도 위에 설립된 ‘사랑과행복나눔재단’ 간의 협력관계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영방송사인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데 책임이 크시리라고 생각됩니

다”라며 “공영방송인 KBS와 손을 맞잡고 국민과 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조용기 목사, 조희준 대표, 고상권 상임고문 외 재단 관계자와 KBS한국방송 김인규 사

장,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진종철 시청자권익보호국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을 진행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과 KBS한국방송은 2011년 4월 14일~17일간 진행하는 ‘나눔더하기 대축제’를 협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1년 사회공헌 관련 사업들을 선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운실, 2011년은 ‘깨끗한 교권 선거’ 운동

회원 총회에서 7대 사업 발표, 새 이사장에 이동원 목사 추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운실)이 3월 7일 오후 6시 서울 숭실대 한경지기념관에서 회원 총회를 열고, 2011년 중점 사업 7개를 발표했다.

기운실 7대 사업은 △깨끗한 교계 선거 운동 △사회 이슈 실천 운동 △목회자 윤리 운동 △재생 종이 사용 캠페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운동 △기운실 포럼 △기독교 시민 교육 운동이다.

이중 주목되는 사업은 ‘깨끗한 교계 선거 운동’이다. 교계의 금권 선거를 개혁하기 위해 예전 정직

윤리 운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총회 선거를 위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올해는 ‘깨끗한 교계 선거 운동’을 하기로 했다. ‘깨끗한 교계 선거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개혁(해체)을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교계 선거 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운실은 ‘사회 이슈 실천 운동’을 전개해 사회에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원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인

| 칼럼 |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아가서 6:13)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한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은 삶에 힘과 용기를 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힘도 용기도 아무런 의욕도 없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며 참고 견디면서 상대방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사회는 신뢰사회가 형성되며,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면서 국가발전이 이룩되는 것이다. 신뢰가 깨어진다면 투쟁과 불신사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오늘 중동 아랍권의 내전을 보면서 자유와 평화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이 죽음을 불사한 항거는 전세계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독재는 시작부터 싹을 잘라야 하는 것이다. 몇십년의 독재아래 갇혀 있는 민중은 더 이상 참기를 거부하고 항거의 깃발을 든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어 새로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유는 사람의 호흡과 같이 귀중한 것이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으로 위로를 보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왜정 감정기를 거치고 또한 6·25의 고통을 겪은 우리는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심본 이해하고 남는다.

국민화합은 신뢰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정치 경제 등 모든 지도자들은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위선과 거짓은 국가발전은 물론 자신도 깃잡는 것이 된다. 정치와 경제가 불인하다면 국민들은 급속한 불안 심리로 변화되어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중동아랍권의 폭동과 내전은 교육부재에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철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가정교육에서부터 형성되어 지는 것이다. 독재는 온 국민을 망하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훈육이 없어지고 감정적인 체벌로 폭행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육 부재의 현실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해 있는 것인데 인성이 빠진 지식만 강조하면 무엇 하겠는가? 윤리와 정서가 메마른 교육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뿐이다. 인성교육이 안된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의 정치지도자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회 혼란을 초조한 일로 고통일 뿐

이다. 현실 사회를 보면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며, 부인이 남편을 교사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가하면 아버지가 어린자식을 죽여 쓰레기로 버리는 비통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속히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이적 부터 정서교육과 윤리 도덕 교육으로 인간형성을 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신앙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회는 기계속의 윤택유치럼 질서와 사랑과 화합으로 발전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독재자는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지 못함때 기인하며 한사람의 잘못으로 국가사회는 파멸로 치달게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자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교육을 맡은 수장들은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시대에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자유와 평화의 사도이며, 정서와 사랑이 가득한 모정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경과 기대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서영웅 목사
푸리탄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 기운실 단체사진

명)를 새로 선임하고, 기존 공동대표인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 백종국 교수(경상대), 임성빈 교수(장신대)는 유임됐다. 또한

노영상 교수(장신대), 최상태 목사(화평교회)가 이사진에 포함되었으며, 사무처장에는 조재호 정책팀장이 임명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상현 담임목사

-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창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신강화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강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강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신강화
		오전 11시	2층 영신강화
주 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신강화
주 일	영아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 무 장 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 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예배 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20절 찬송가 268장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권하며 권면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앞에서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복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41절 찬송가 94장

바울은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므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분이 가득하여 더 크게 아데미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소동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상은 죄며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위로하기 위하여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12절 찬송가 507장

바울은 밤중까지 강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려 그만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살리고 이를 본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 다시 살아난 분명한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 아닌 남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물질과 능력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복음을 위해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36절 찬송가 257장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

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을 생명보다 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 못할 지라도 시간과 물질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40절 찬송가 442장

바울은 두로 폴레마이 가이사라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와 율법에 오해를 한 교인들이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형제와 함께 예식을 할 것을 바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형식과 내용을 균형있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 형식과 내용을 균형있게 행할 줄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복음의 주인공이 되라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30절 찬송가 253장

바울은 본문을 통해 출생과 성장 그리고 회심 과정과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게 된 경위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 기록을 넘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선포하고 결국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주인공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상황과 형편을 넘어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여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들이되기를 소망합니다.

7.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35절 찬송가 446장

본문을 통해 바울은 보전 고초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밝기는커녕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악인의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합니다. 여기서도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천부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택한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택한 가정이기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덮을 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27절 찬송가 505장

본문에서 변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여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추종자요 부활의 신봉자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어떤 통로?

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27절 찬송가 509장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제거하려 했으나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기에 가능한 일였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주님이 부탁하셨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고난을 통해 격정의 통로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위기를 기회로

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32절 찬송가 432장

본장은 바울의 최후 변증을 실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은 신앙인의 당당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자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재판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어디에 있든지 신앙인의 당당한 모습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정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11. 고난을 피해 갈수 있는 방법(1)

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21절 찬송가 458장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달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배를 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는 출발하였고 배는 광풍을 만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가정이며 고난을 피해갈 수 있

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2. 고난을 피해 갈수 있는 방법(2)

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26절 찬송가 458장

많은 사람들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 하지만 바울은 안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속에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5-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기적과 축복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우리 가정 때문에

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44절 찬송가 492장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의 말대로 배는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도착해 배가 절리게 됩니다. 그때 군사들은 백부장에게 죄수들이 해염을 쳐서 도망갈지 모른다고 하여 죽이려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의 태양

최영옥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 한국어 지도사

오늘은 웬 일인지 10 대를 뒤돌아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지 않은채 온종일 친구들과 뛰놀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아버지께서 "영옥아,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다 했느냐?" "예 다했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공책을 검사하면 어찌지?" 더욱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확 빨아올랐지만 가까스로 떨리는 마음을 감춘채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간 후 행동이 이상했던지 부모님들이 나의 책가방을 뜯어 보셨습니다.

기릿말을 한 나는 꾸지람을 실컷 듣고 서야 다시 책상에 마주앉아 그날 숙제를 다 끝내고 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엄격한 사랑으로 다음날 학교에 간 나는 단언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반의 다른 학생들이 하나와 같이 숙제를 한량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기뻛고 부모님께 감사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칭찬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

다.

그날 나는 마음깊이 다짐 하였습니다 다시는 놀고 싶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어주신 숙제는 어김없이 그날로 끝낸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저희의 뜻을 막았다고 42-43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정 때문에 교회가 살고 우리가정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4. 고난 그 다음을 기대하라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31절 찬송가 539장

바울일행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치고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을 역시 고쳐 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고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난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정역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 가정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그 다음을 기대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또한 모범 학생이 되어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참한 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랑스러운 딸 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고 바르게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오는 따라 가슴에 사투집니다. 40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지만 오늘은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야 숨이 쉬어 질것 같습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이 세상에 단 한번 밖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못난 이 딸을 이 세상에 태어 나게 하여 주시고 예쁘게 키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손수 양심으로 보여 주신 부모님 다시한번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대로 만나 볼 수 없어 가깝고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날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로 긴간함을 새우고 있습니다. 멀리 않은 그날 반드시 만나 뵈을 부모님 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북쪽 하늘을 향해 머리 숙여 큰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크게 한발 옮기면 대문을 열어 설 것도 같은데, 두 팔 크게 벌리면 한달음에 달려가 안길 것도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혼자만 잘 살겠다고 집을 떠나는 못난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아님니다. 저로 인하여 아버지 어머니께 모든 시련과 고초를 겪게 한 배은망덕한 이 딸년을 설대로 용서 하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마음의 태양이십니다.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강사 : 총재 음악박사 장창운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주최 김지수 목사 특별초청

2011 대구주암산수양관 2011 순례축복.치유성회

이날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라(엡 1:3)

주최

대의장

주최

자차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CBS방송예교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CBS방송예교

김지수 목사
진주해송교회
CBS방송예교

위 (2010년 주암산수양관 축복성회)

아래 (경남지역 어울림 마당 성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날 짜: 2011년 4월 4일(월) - 7일(목) 4일간

시 간: 새벽 6시 / 낮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1일 3회)

장 소: 주암산수양관 (대구 달성군 가창면 병천리 216번지) ☎ (053)768-6205

성회문의: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02)862-3181 / 010-5678-9950

주최 :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http://0675.us http://0675us.onmam.com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 장창운 목사 2주연속

대구지역찬양치유 축복성회

죽여~! 나를 구하소서 내게 갚겠사오니. (렘 17장 14절)

회장

강사

조승재 목사
해사대신교회/김영남

장창운 목사
새원전교회/장영희

회복의 역사

영권회복

인권회복

물권회복

장창운 목사 찬양치유 세미나 및 찬양치유 축복성회 광경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혜
기도의 능력
치유의 기적

일시 제1차 2011년 4월 11일(월)~14일(목) 저녁 8시(1일1회)
제2차 2011년 4월 18일(월)~21일(목) 오후 2시/저녁 8시(1일2회)

장소 예수사랑선교회 기도원(원장 조승재 목사) / 문의 010-6307-0675

주소 대구 동구 방촌동 902-26번지 / 감사연락처 010-5678-9950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방촌역 1번출구 방촌시장 앞 순례치유관 100미터지점
☎ 동구3교(교회앞차), 618,719,808,838,980, 동구1, 동구2(방촌시장 하차)

구원론 (15)

예수님의 보혈Ⅳ

원수 지만 하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 배후 사탄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일4:7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어둠의 영이 하나도 전혀 없다는 것이요 영원하신 생명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말함)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하고 인치 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 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는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아프셨나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고 그 고통이 내게 느껴지는 거 같아서 울었지만 단계단계 올라가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사와 희락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속죄피 입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놓으신 영원하신 속죄 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만 받고 살도록 속죄해 놓으신 영원하신 속죄피인 것입니다. 다신 한번 증거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원수 된 지만 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롬8:32에 보면 자기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인주시겠는가? 요16:23-24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또 예수그리스도의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으시고 주실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왜 주시느냐? 요14:13-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그 영광을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오직 영광을 위해서...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이름은 무슨 이름? 자기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적과 이유 오직 영광 받으시려고 사43:7)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시는데,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고후5장) 그 아들 예수를 만유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므로 만유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시는 도구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하나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피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피요 사랑의 피입니다. 그 속죄 피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은혜의 사랑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속죄 피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오직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말씀 / 임마누엘영성원 원장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 영성원 원장
본지 부사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 22:32절 3.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의하여 산 자된 아브람에게 창 12장부터의 계사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산 자가 되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특별히 간섭하시어 아브람의 신앙을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1) 창 12:8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람은 복을 받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아니해도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넘치게 주십니다(마 6:31~33, 빌 4:19).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또 주실 것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산 자의 신앙입니다.

2) 창 12:10의 그 땅(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지만 이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창 26:1~2와 똑같은 경우로써 애굽으로 내려가자 말아야 되지만 아브람이 견뎌 이겨낼 힘이 없는 아직 어린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아내를 누이라 했으니 이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기 목숨이 빼앗길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아내를 바로왕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창 13:20의 그 모든 소유를 아브람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를 지켜주셔서 사래를 다시 되찾고 애굽영으로 부터 큰 소유물까지 얻게 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브람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산 자된 우리를 역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막 4:26~27). 밤에 자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더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요(이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중 마귀를 통한 간섭섭리 역사임), 낮에 자라나게 하심은 참 빛되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심을 계시(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직접섭리 역사임)하는 것입니다.

3) 산 자된 아브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였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흡수하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신 11:11)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며 인도받아가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창 13의 계시). 그러나 롯의 눈에는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물질 문명이 풍부)가 하나님 동산처럼 보였고 따라서 소돔 땅을 택하여 갔으니 그 땅의 실상은 얼마 못가서 별하기로 작정된 곳을 알지 못하는 롯의 육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한편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기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유업의 땅이요, 곧 하는 영광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면서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4) 히브리인인 아브람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현현하였고 아브람이 분별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시며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난 날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같다고 하였으며(히 7:1~3) 그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살아 계시다고 증거 되시는 분, 즉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히 7:8) 아브람이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의 열매 맺게 하시며 악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는 영광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므로 아브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곧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의인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하면서, 또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4.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된 아브람을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람에게 있는 혼잡을 찌꺼기를 모두 빼내 주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케 만들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 1:25, 욥 23:10).

1) 창 15:2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삼남,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본지 상임이사

인해 많은 믿음의 후사가 있게 하여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로 나의 후사가 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요 아브람의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친히 나는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시의 유명하고 전통있고 훌륭한 자 엘리에셀을 뽑아 길렀다고 해서 아브람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람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재삼 확약하십니다(창 15:4~8).

2)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듣고 중한 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후사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창 16:2~4, 15). 아브람의 처인 사래의 의심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중 하갈로 잉태케 하여 후손을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브람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오늘날 까지 중동 분쟁, 즉 회교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의 끊임 없는 전쟁이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런 일이 다 없어지기까지, 즉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3) 창 20장에서 남방으로 이사한 아브라함입니다. 남방으로 이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남방 왕 아비멜렉이 사랴를 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산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찬송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보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더 뜨거우니 뜨거운 남방으로 옮겨가 벌이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자를 더 두려워하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칭하게 됐고(사 51:12~13) (다음호에 계속)

2011 학년도 1 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구 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 학 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케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대한예수교
장로회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모상련 박사
연구원장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 핸드폰 : 011-631-1977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M.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저전동 162-6번지 / 담당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목회자칼럼

『축도(祝禱)』와 『복의 선언(宣言)』

한국교회의 목회자 대부분이 “복의 선언”을 “축도(祝禱)”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복의 선언은 안수 받은 목회자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복을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선언하는 목회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복의 선언”은 구약에는 대제사장(민 6:24~26)과, 신약에는 사도(고후 13:13)들의 기쁨부음 받아 특별히 임직된 주님의 사람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안수 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복의 선언”이 “축도”라는 말로 변형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교회의 초기에는 안수 받은 목회자가 적어, 목사가 아닌 비 안수(按手) 목회자는 “복의 선언” 직무(권한)가 없으므로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축도(祝禱)”라는 이름으로 변형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원한다”는 기원(祈願)적인 뜻을 담은 표현 상태로 사용한 것이 “축도(祝禱)”라는 관용어가 되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의 선언”이라는 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여, 일종의 기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복을 비는 뜻을 담은 말로 대체한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노인 성도들에게 “있을 지어다”라든지 “원하노라”는 선언적 표현이 윤리적(倫理的)인 어감(語感)이 부자연스럽다고 하여, 기원(祈願)적인 표현형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의 선언”은 목사의 고유적 직능이기 때문에 “있을 지어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은 윤리적(倫理的)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적인 입장에서 선포(宣布)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복의 선언”은 기도의 유형이 아니므로 “축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없다. “축도”의 단순한 뜻으로는 “빌고 빈다”의 뜻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비는) 형식은 모두 “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를 주관하는 순서로 목사가 손을 들어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사에게 부여된 복의 위임을 행사하는 것이니, 기도와는 다른 성격

을 가지므로 선포인 것이다.

(고후 13:13)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에서 ① “은혜” “혜 카리스”는 “그 은혜”라는 말이 문장 첫머리에서 그것도 관사 “해”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바울이 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첫 머리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었는가? 이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의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이다.

② “하나님의 사랑이” “해 아가페 투 데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요 3:16)의 독생자를 주신 “이 처럼”의 사랑을 의미한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일 4:19),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있으라는 뜻이다.

참으로 오늘의 악한시대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必要)한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③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서 “교통하심” “혜 코이노니아”는 오직 성령과만 소유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코이노니아”는 “함동, 교제, 밀접한 관계, 관대, 동정, 선물, 같이함, 나눔”으로써, 실로 많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그리고 “코이노노스”는 “친구, 동참자, 참여자”란 의미이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진실(眞實)한 친구(親舊)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를 입도록 하여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복을 선언하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다. 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적인 복의 소원을 선언하는 형태가 있고(민 6: 24-26), 다른 하나는 신약의 사도적인 복을 선언하는 형식이(고후 13:13)있는데, 현대교회의 복의

선언의 근거를 삼는 것은 후자이다. 이러한 예시적 근거는 모두 기도체가 아니고, 선언체인 것이므로 기원적인 체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성자, 성부, 성령님의 칭호 앞에 광장(廣場)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형용사로 수식하여 기도를 하며, 또 성경말씀을 낭독하고, “복의 선언”의 표현양식의 혼란을 일으켜, 선언마무리에서 “축원하옵나이다”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라는 등의 선언 체도, 기원 체도 아닌 어색한 어형(語形)으로 마감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 각별한 유념이 있어야 하겠다.

“복의 선언”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기능이 있다. 그 하나는 예배를 마감하면서 안수되어 세움 받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사랑의복과, 교통(교제)함의 복이 있기를, 복의 임재(강복)를 실제화되기를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에서 나타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됨을 확인하고, 결단을 다짐시키며 소임을 부여하는 선언이기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의 선언”은 소중한 목회적 기능이며, 목사의 직무이고, 예배의 중요(重要)한 요소(要素)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의 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의 임재를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엡 6:24; 고전 16:22) 선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목사가 “손을 들고”(눅 24:50이 근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온 성도들과)함께 있을 지어다”(고후 13:13)의 사도적 표준형을 오늘의 정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의 덕목(은혜, 사랑, 교통) 앞에 삼위하나님의 속성적 기능을 해설적으로 수식할 필요는 없다.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이 이상의 어떤 수식어도 그 언어 속에 다 함유(含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언적인 어체에 부해 적이거나, 꾸밈이 요구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축도”는 “복의 선언”(pronouncement Benediction)이란 선언형태로 해야 한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교론

신학교(神學校)와 신학교(新學校)

한국에는 문교부 학력 인정 신학교 및 대학원대학교가 약 70여 개이고 그 외 교단 직영신학교와 비인가 군소 신학교 모두 합쳐서 약 3-4백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늘 불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신설되고 문 닫는 중소 규모의 신학교들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신학교(新學校)들의 춘추전국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심각한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하다. 그 설립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신학교가 영적지도자 양육기관으로서의 대체적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가 군소신학에 이르게 되면 그 심각성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신학교의 난립과 이에 따른 품질저하는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 사회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시급하고 적절하게 이에 대

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이 개방되면 한국의 신학교들은 대 혼란의 와중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선 안수, 후 교육’의 기상천외한 제도가 있는 집단의 신학교도 있다. 할 말을 잃는다. 이는 마치 무면허 음주 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신학교는 일반 학문의 상위에서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그만큼 신학은 의료인이나 법관이 되는 것보다도 더 영혼을 책임지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특별한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의미와 가치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신학교를 생존경쟁력있는 경영기법의 일반 교육 개념으로 제도화 하려는 인본주의도 답답한 일일 뿐더러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소위 영적이라는 말로 무속화 하려는 세속 신비주의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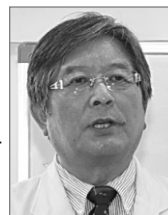
코메니우스의 교육이념은 한 인간



이준선 목사
칼럼리스트

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 영생의 생령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신학교에서 부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의 기독교 정체성과 커리큘럼을 특색화하고 차별화하는 신학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오늘날 그야말로 기독교 교육이 경직되고 방황한 각을 잃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지도자들의 교육철학이 바로 서야하고 둘째, 기독교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하고 셋째, 기독교 교육의 전문인의 집중적인 양성이 시급하다. 우리들은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다. 직무유기!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 (4)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 엘리사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세상은 더 악했습니다. 오늘 날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감절이나 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감절의 능력을 구하는 이 대회는, 왕하 2:9-10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감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나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엘리사가 요구한 일의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엘리야는 자신이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

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 즉, 신령한 축복을 원한 것이기에 그 일은 어렵다고 한 것임니다.

또 엘리야는 후계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식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치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신적인 증기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엘리사의 신앙심 깊은 요청이 허락되도록 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는 말씀은 신 31:23에서 여호수아가 보세의 지도권을 양도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적이 곧 엘리사의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증거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승천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그리고 그 승천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의 요청이 성취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는 말을 첨가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냄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리새들처럼 그분의 뜻을 신뢰하였으며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태도의 보범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 우리 모두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며, 우리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뱀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갈수록 사나워지는 마귀의 행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월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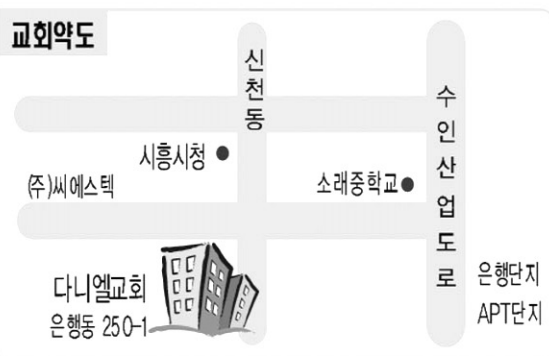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 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 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 초등부	주일오전 9:00	4층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대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수 일 오후 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5:00	4층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4층
	대예배실	대예배실			대예배실
설예배	영양대교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8:00	2층	설예배		
	각 설예배	설기강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 (28)

건강은 자신감의 원천이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 8)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 119: 103)

현재의 삶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불건강한 생활양식에 저들어서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후념 속에 건강의 경험 없이 사는 현대인이 많은 것 같다. 건강의 희열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건강은 행복감의 제1가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거나 제멋대로 굴리는 사람치고 행복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쾌락은 대개의 경우 불건강한 생활양식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불건강의 악순환은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불건강은 불건강을 낳게 마련이다.

건강을 포기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일을 할 때에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과 건강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벌이는 것은 “자해행위”에 해당된다. 건강없이 하는 일이 잘 될리 만무하다. 건강이 없으면 냉철한 지성과 판단력이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쉽다. 일은 갈수록 꼬이고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따라주지 않으니 초조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일도 망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학사 입구 학동교회 아련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책을 맡을 때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게 일의 속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의 추진에 앞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황성주 박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중에서

칼럼 토브의강단

복음이나 구원을 우습게보지 말라

자칭 길거리의 도인이라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성경에서의 성령 훼방 죄에는 사함이 이 땅에서 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사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유의하는 삶과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복음 차원의 구원기관으로 하여 구원 안될 죄 항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사해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 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세 참여권을 박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맨 마지막의 입성 코스로 그 이전에 천년 왕국이라는 내세가 있게 되는데 궤박으로 고난적인 연단 신앙생활 하느라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땅의 삶의 개념처럼 살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내세 참여권 (상, 별, 차원, 또는 보너스)을 주사게 되는데 성령 훼방

죄를 짓는 자는 이곳의 참여를 불허 하시겠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은 천국과는 별개의 곳으로서 즉 상, 별, 제도를 실현하는 곳인데 만약 어떻게 믿었던지 관계없이 내세 참여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상, 별, 제도가 필요 없게 되고 순교도 불쌍하게 되고, 땅에서 잘 믿어 보려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복음적 구원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내세 참여를 거친 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쭉정이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관통과불의 심판 노정)를 거치는 동안 내세 참여권은 박탈된 채 나중 심판을 거쳐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라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될 자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흥종교의 교주였던 자나 귀

신에게 얽매어 평생을 섬기겠다고 했던 타종교 신봉자나 무당, 점쟁이,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순탄하게 믿는 자 보다 더 성화 노력하여 영혼에 묻은 사탄의 때를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나 구원을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내세에서까지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세 참여권을 줄 수, 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성령 훼방 죄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귀신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면 영 육간에 구원을 잃게 됩니다. 길거리의 도인들이란 자들은 아르바이트 자들로 자기들 본부로 사람을 덕 된 말로 유인 해가서 고액의 제사를 지내게 하여 수당을 챙기는 자들이니 경계 하십시오.

김광식 목사

과천 토브교회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감 만들어주기센터」 8개소 운영

충청북도는「2011년 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8개소 설치, 장애고용 친화기업 20개 발굴 등 3,627명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고용확대라는 가시적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 대부분이며, 고용의무제에 의한 일자리 사업의 한계로,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유형별·육구별 서비스를 개발, 지원

하는 「맞춤형 평생복지」구현은 물론, 비장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복지 정책을 펼치며,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무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도내 64개 민간기업체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유형과 특성에 맞도록 “소근육 발달 훈련, 작업기능 훈련, 기초체력 단련훈련을 실시하며, 지역별 특화된 일감을 만들어 주어 직장적응력 향상 및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

원한다. 이 사업은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주5일, 1일 4시간이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추후 시군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로 자리매김토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신품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생신품 판매시설 운영, 시군 순회 장애인 생신품 직거래 모듬장터 운영 12회, 중국 북경에 중증장애인 생신품 해외전시관 운영, 불가리아(서유럽)에 해외 판촉방안 강구(샘플납품)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한다.

의사들 건강관리 1위는 걷기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법으로 걷기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순천향대병원 이소숙 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한 ‘나의 건강비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들은 걷기(33.6%)에 이어 규칙적인 운동(27%),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13.1%), 달리기(5.7%), 맨손체조와 스트레칭(4.1%) 등을 꼽았다.

음식에 대한 건강관리 요령으로는

소식을 꼽은 응답자가 1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채소를 듬뿍 먹는다(11.5%), 콜로루 먹는다(9.4%), 짜지 않게 먹는다(7.9%), 가공식품을 자제한다(6.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먹는 건강보조제로는 비타민(48.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홍삼·인삼(15.5%), 오메가3(5.2%), 칼슘(2.5%), 단백질(1.8%) 등이었다. 스트레스 관리요령으로는 긍정적인 자세(16.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골프(7.4%)와 영화감상(6.6%), 여행(5.7%), 등산(4.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표어: “좋은 땅이 되라! (마13:8)”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따로 있나 우리 모두 좋은 성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오종설

2011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년 예배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일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일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모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영 청년회	토요일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충남서로아카데미	월요일 오전 11:00
2	배독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재지훈련	주중 평한시간
5	숫돌에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숫돌이	주중 매일
8	제책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병과학교실	주중 매일
10	홍성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홍성시립도서관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림리 952 번지
전화: 041- 634-0441 (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세/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요일 6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일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요일 6시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대한예수교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권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감동과 추억의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첫 발을 디딘지도 어언 20여년이 흘렀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가보다. 중간 중간에 그 땅을 밟을 기회는 있었지만 2011년 금년도 1월의 발걸음 속엔 또 다른 감동이 적혀있었다. 보통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쏟아 놓는다.

가난, 기아, 질병, 어두움, 분쟁 등등 별로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그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선입관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불어도 앞의 단어들과 함께 선교의 대상 1번지라는 언어를 서슴없이 내 놓는다.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여러 설명 보다는 때가 되면 아니 좀 더 광권적으로 그 땅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그들과 어울린 후에 다시 한번 똑 같은 질문을 하겠노라하고 싶다.

아프리카는 분명 오늘날 선진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잣대로 보면 낙후되고 어두운 면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임에는 확실하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행복지수를 받아보면 의외의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리라.

필자가 잘 아는 한 선교사는 젊은 처녀 시절 아프리카에 놀러가는 마음으로 갔다가 저녁 노을에 불드는 평원에서 품위 있게 걸어가는 기린을 바라보며 여기가 나의 또 다른 고향이란 것을 알고 평생을 헌신하



▲우간다디오교회 헌당 후(중앙 하얀까운 정기환 목사)

는 모습을 보았다. 아프리카는 자연이 우리의 속사람을 흡족히 흡수해 가는 능력이 있는 잠재력의 땅이다. 그뿐이겠는가 눈망울이 빨랑빨랑한 아이들과 한번 어울려 보면 인간의 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보노라면 그 별들을 세어가며 시간이 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움이 넘쳐난 땅이기도 하다.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단이 지금은 피로감에 쌓이는 선물들을 잔뜩 부여했지만 이 또한 영원할 것도 아니고 잠시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아름다운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이 또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목사란 이름으로 목양을 하면서 세월을 흘러 보내고, 그 중에서 그대도 주님 앞에 무엇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을까를 되뇌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 헌당할 때, 그 때에 그대도 티끌만 큼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곤했다.

그 멋진 사역을 위하여 아프리카는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불철하기 어려운 축복의 꽃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좋은 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일인 만큼 난제도 있고 사단의 방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그 일들은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이기도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금년도 1월에는 세계원주민

선교회를 통하여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두 교회를 헌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현지에서 빛도 없이 이쁨도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땅~! 아프리카.

저들의 순수한 찬양과 온 몸을 적시는 땀은 지금도 머릿속 가득히 추억으로 남아 있다. 아프리카는 그저 가난한 땅이라고 소리치기 보다는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한 땅이고, 순결한 심령들이 말씀을 묵상라 하는 소망의 대륙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옳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은혜를 끼쳐다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듬뿍 선물로 받고 오는 대륙,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이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 수료식 가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원(원장 이현석)에서는 지난 28일(월)오전11시 서울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제1회 한국어 지도교사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차매임 목사의 지도로 시작된 수료식에서 박영남 교수는 "새봄은 살아남은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계절이요, 죽은 자에게는 새봄이 없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자리면서 졸업은 종점이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이요, 아픔의 사다다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 이는 하나의 과정이요, 이것이 졸업의 의미"라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졸업은 종점이 아니라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공부의 끝이 없다고 하고, 시대의 리더로 사는 길은 미래를 향해 올라가는 자라고 했다. 동대학원 미래지식 교육원 제1기 한국어 지도교사를 졸업한 모두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동춘 교수의 축하와 정기남 목사(본지 CJTN방송 대표

이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정목사는 발전적인 인생은 업그레이드 인생으로서 성공하는 삶이라며, 산이 높을수록 오르기는 힘들지만 정상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더 멀리, 더 넓게 보인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박영남 교수, 오동춘 교수, 오양심 교수 외 많은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오늘의 여러분이 있었다며 이제 정상에 선 여러분은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사역이 시작되었다며 격려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어 권영재 교수가 답사를, 홍성민 교수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김영주 교수가 "공부가 재미있다"를, 최영옥 교수는 "나의 봄은 어디쯤 오는가"란 소감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남은 교수의



▲박영남 교수 오영심 교수 오동춘 교수

축가가 연주했다.

이어 오양심, 박영남 교수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CJTN방송 정기남 대표는 논설위원으로 신문방송에 크게 기여한 박영남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 교육대학원장 이현석 박사, 동 대학총장 김진규 박사는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날 건대 미래지식 교육원 제1기 한국어 지도교사 자격증을 수료한 지도교사들의 소감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남은 교수의

한지협 3·1절,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 신선복 목사 (사)한지협 대표회장

(사)한지협(대표회장 신선복 목사)은 지난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북한 재건을 위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제로 "북한동포 해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 대 성회와 함께 북음의 불모지인 북한을 구원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1부는 정재규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어 배태회 목사(공동대회장)의 기도, 신선복 목사(대회장)의 대회사, 이규희 목사(공동대회장)의 성경봉독(출19:6), 연합성가대(지휘 김신범 교수)의 특송, "고이 숨겨둔 민족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문호 목사(갈보리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우리민족과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오희오 목사(공동대회장), 나라의 인정과 번영을 위해 김재승 목사(공동대회장),

북한동포 해방을 위해 "최윤권 목사(공동대회장), 북한동포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김진호 목사(공동대회장),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창영 목사(공동대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아울러 고충진 목사(부대회장)의 합삼기도, 민승목사(고문)의 헌금기도, 김동권 목사(공동대회장)의 격려사, 김세영 목사, 한동철 목사, 양영오 목사, 이흥규 목사 등의 구호제창, 김탁기 목사(홍보위원장)의 광고, 애국가제창, 최해일 목사(명예대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대회장 신선복 박사는 "송고한 3.1절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1200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며 "작금의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명예욕과 금권논쟁에 휘말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진정한 양심 고백 운동과 함께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며 대회를 전했다.

이날 모두가 더불어 전심으로

찬양과 함께 북한 동포들을 위한 뜨거운 열정은 오직 눈물의 기도 아니면 불가능 했다. 이번 대성회의 목적은 한국교회와 우리민족의 죄와 함께 부패한 기독교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으며, 기록한 성민의 가치성을 상실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했던 어리석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특히 인권과 인격과,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한국교회의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게 토로했다.

자유와 생명이 주권한 이번 3.1절 대 성회는 '북한 재건을 위하여 한사람을 찾는다.'는 범국민 북한구원 운동과 함께 '북한동포 해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한반도 통일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는 조성래 대표의 합심 출발로 사뭇 기대가 크다.

오프닝과 함께 생동감 있게 울려 퍼진 양각 나팔 소리가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회개만이 살 길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임을 간구했다.

한기총, 찬송가공회 문제 진상파악 착수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 "철저한 조사로 진실 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한국찬송가공회 문제에 대한 진상파악에

착수했다. 한기총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지난 8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찬송가공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견례 형식으로 모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조사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상조사 내용을 3월 25일 11시에 회원 교단 대표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D.Ed, Th.D.)

지민들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과 가치들이 험없이 무너지고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의 직영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훈련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직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도복행기7세대출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웨스턴 중앙노회 부노회장 *전통문화연구원장 *저서성경판권 및 디자인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 집 학 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기독교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명신위성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인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전 형 안 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불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이벤 학기 교수진

정기환 교수(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김용진 교수 : (Ph.D)(美)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장영웅 교수(고대근동학) : (Ph.D)(澳)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임철환 교수(교회정체)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장창수 교수(헌법) : (D.D)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정철성 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권영환 교수(변증학) : (Th.D. Cand.) 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마호인 교수(교회사)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 교수(목회상담학) : (Th.D.Cand.)長老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 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안병삼 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성규 교수(교회음악) : (D.S.M. Cand)(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Charles H. McVty 객원교수(성경신학) : (D.Lit)(蘇)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rew Joo 객원교수(심신신학) : (D.Min)(加)Christian College
Rondo Thomas 객원교수(조직신학) : (D-COC)(加) 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200m지점 신천지불가야 옆 코너빌딩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배가 고픈 이유를 아는가?

천명(天命)을 다해야 행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사람이 때가 되면 시장기를 느끼면 서 배고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야 한다. 일전에 기도원 총무 권사님과 점심을 나누는데, 용기면으로 간단히 하자면서 약간 늦은 점심을 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반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권사님께 물었다.“권사님! 왜 배가 고픈지 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약간은 어리둥절하면서 답했다.“때가 되어서 아깝니까?” “그런 간단한 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배가 고픈 것은 위가 비어 있어서 채워달라는 것인데, 위가 하는 일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소화시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할 일을 위해 일감을 달라는 것이예요.” 그렇다. 이 사소한 사실을 하나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바로 일과 사명이다. 인생이란 것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할 일을 해야 한다. 위가 일을 하기 싫어서 쉰다면 그 인생은 문제가 발생한다.

내게 주어진 일- 할 일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할 일이 정말 없다는 것도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일을 해야 한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업성어동(業成於動)이란 말이 있다. 무엇인가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말이다.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위(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라.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라고 감당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금의 것을 소회시키지 못하면 또는 회피하면 당신의 인생은 쇠약해진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인체의 각 부분 곧 지체는 나름대로의 다 기능이 있다. 곧 그에 해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한그루의 식물(미래)

한다. 사명을 다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천명(天命)을 다해야 행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있다. 모세의 수명이 120년이었는데, 그 때 모세의 건강상태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 양호한 건강상태에서

도 하나님은 모세를 노보산에서 생을 마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게 한다. 생각해 보라 모세의 건강상태로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모퉁지기 4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본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감을 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의미가 있다. 바로 사명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이었다는 말이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와

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그 사명이 요단강 접경까지 와서 끝이 난 것이다. 당신이 할 일 곧 사명이 없다면 죽을 일 밖에 없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는 일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할 일 곧 사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일의 경중(輕重)이 문제가 아니다.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이제 할 일이 없는가?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가? 하늘을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당신의 인생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적신호가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겸허히 생각하라. 혹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아니면 할 일이 있음에도 육체의 안일 때문에 게을리 하지 않는가? 당신의 운명은 당신 자신에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제 분명히 일어나 일을 찾으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일을 하라! 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일을 찾으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인지하라!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미래가 밝을 것이다. **집필 / 정병만 목사**

北 전자전에 왜 이대로 당하기만 하는가?

적 전자전제압, 핵실험과

ICBM발사장 등 무력화대책 긴급



적의 전자전공격

北이 해주와 개성 등지에서 서해인과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강력한 GPS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일반시민의 휴대전화나 네비게이터 등에게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됐다. 군 당국은 북이 GPS 재밍을 시도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GPS는 현재 유도탄, 유.무인 항공기, 함정, 전차, 통신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북한이 GPS 재밍을 시도할 경우 JDM과 같은 첨단 유도무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을지포리답가터언(UFG)훈련기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으며, 이번 공격은 지난 달 28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 7월 7일 일대 혼란을 가져왔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20개월 만에 4, 5일 재개되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과 개인 PC에까지 피해를 주어 심각한 안

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유사시 전쟁지도 책무가 있는 국가 고위당국자들이 일상적인 군사용어조차 못 알아들을 정도로 軍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북과 연관을 속단 말라”, “확전 말라”는 등 오발(誤發)로 혼선을 자초하여, 즉각적이고 효과 있는 대비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이다.

우리정부 및 군 당국은 무슨 일만 있으면, “원점타격이다, 즉각적 보복이다, 배가의 응징이다, 선 조치 후 보고다” 말의 성천만 요란하고 “130억 예산이 없어서 시각잡리전 용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치졸한 예산타령이나 내세우기 일쑤였으며, 최근에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제압 및 고는 정작 속 시원하고 후련하게 무엇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기억이 없다.

천안함포격과 연평도 포격을 당한데 이어서 연례행사로 DDs 공격이나 당하고 심지어는 휴대 폰이나 네비게이터까지 먹통이 되는 피해를 당하는 판국에 메카트로닉스와 된 고가첨단 군사장비가 값싼 러시아제 전자전 장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敵의 전자전공격과 사이버 범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공격이라도 하여 전자전 도발 원점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핵실험장이나 ICBM발사장 자체를 일시에 마비시키거나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적극 공세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백승욱

한국 국회 일본 마에하라 외상의 양심을 닮았으면

위법은 위법과 자신과 동료 구하기 전념 차이

한국 국회는 자신들을 위한 법안 제정을 가지고

국민과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 가더니

외국인으로부터 소액 현금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거센 퇴임 압력을 받은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전격사임을 발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자신이 중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재일 동포인 70세의 할머니(음식점 운영)로부터 이른바 정치 현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어찌했던 자신이 불법 현금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라면서 사임을 선택했다. 270만원이라는 현금 자체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만 여하튼 위법은 위법이기에 때문에 준법정신에 입각해 일본 외상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웃 국가인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 내각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일본 외상의 자진 사퇴에 반해 어지간하면 이렇게 저광계를 대고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 구하기 행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천하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은 우리를 서글프게 했다. 어느 사회나 불법, 탈법, 위법, 권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그러한 법률 위반을 한 사람들이 고위 정치인일 경우, 그들 자신들을 위한 법 제정에는 물론 가리지 않고 덤비면서 정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아주 뻔뻔하게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법정신에 저항을 한다.

그러다 여론의 못매를 맞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할 수 없는 불증을 들이대면 그때서야“채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철창신세”로 전락한다. 공정을 외치면서 너무나 불공정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을 즐기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번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견해였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도 이번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었다. 하지만 국회통과와 반대에도 법안은 통과되고, 결국 못매를 맞고서야 꼬리를 내리는 모양이다. 국회 스스로의 잘못을 뒤우치고 올바른 정자법을 다시 만들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잘못된 부분을 고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정자법은 당연히 폐기처분하고 여야가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이런 행태는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역풍을 맞아 그 역풍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저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에는 미적미적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법안은 어떤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것은‘번갯불에 콩 구어 먹기’식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국회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상당수 국민들의 눈에는 비춰졌다. 하지만 국회는 스스로 이번 정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의 여론에 못매를 맞고 정자법을 폐기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말처럼‘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행사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간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욱 대기자

열두광주리기도원

김평호 목사 부흥회 일정

2010년 12월	6일~9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13일~16일	여호와삼마수양관
	23일	행복한교회
	26일	보아스 사랑의집
2011년 1월	27일~30일	열린문교회(상계동)
	3일~6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10일~13일	순천이레수양관
	20일	한국찬양선학원
2011년 2월	24일~27일	치유센타기도원
	7일~10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14일~17일	여수삼마기도원
	21일~24일	전주은일교회
2011년 3월	28일~3월3일	인천임마누엘기도원
	7일~10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14일~17일	사랑의교회(의정부)
	21일~24일	금촌벤엘기도원
2011년 4월	27일	보아스사랑의집
	31일	리더스기도원
	4일~7일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10일~13일	운하기도원
2011년 4월	25일~30일	필리핀체육관집회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김평호 목사

- 선한목자부흥사회 회장
-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
H.P:010-8411-0191, TEL:031-535-6975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준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물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만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 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수있음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이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 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광교회 대표전화 : 031) 384- 7408 부록사실 : 384-9744, 385-8933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조직 현황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기도

2011년도 3월 연속 정기예배 및 사무실 이전예배

●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후2시 ● 장 소 : 청량리지부 세계선교교회(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3-2 302호)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고문  지덕 목사  피종진 목사  장광영 목사  이응규 목사  엄신형 목사  정도출 목사										부총재  허영희 목사  박현주 목사  라도숙 목사  허성자 목사  함신순 목사  박은혜 목사						이사장  조남학 장로
의전 실무회장  박흥례 목사		서울지부 대표  김옥순 목사  서민순 목사		경기지부 대표  박숙희 목사  황은혜 목사		인천지부 대표  송복순 목사  박귀자 목사		대전지부 대표  위운남 목사  이형옥 목사		충남지부 대표  박인숙 목사		충북지부 대표  김은희 목사		전북지부 대표  박인순 목사				
행정 실무회장  황은혜 목사		전남지부 대표  김복자 목사  이정희 목사		강원지부 대표  최미미 목사  박은혜 목사		부산지부 대표  박흥례 목사  김은지 목사		대구지부 대표  정현숙 목사		경남지부 대표  김은희 목사		제주지부 대표  박인순 목사						
한기여총 전국지부 회장단		서울1지부  허영희 목사 (신용교회)  최인자 목사 (서울중앙교회)		서울영등포지부  임덕희 목사 (뉴월드예술신학원)  임재숙 목사 (성광교회)		서울강동지부  유순자 목사 (세동교회)  김옥순 목사 (시온교회)		서울강서2지부  윤정순 목사 (비전교회)  김소자 목사 (신도교회)		서울중랑1지부  남진영 목사 (성광교회)  김문자 목사 (신도교회)		서울중랑2지부  정연희 목사 (남촌교회)  한영숙 목사 (은총교회)		서울노원1지부  이소정 목사 (엘라비예술신학원)  이현숙 목사 (주님교회)		서울노원2지부  이단 목사 (엘라비예술신학원)  이진선 목사 (예배교회)		
경기수원1지부  박숙희 목사 (예배교회)  신복근 목사 (예배교회)		경기수원2지부  홍순호 목사 (수원중앙교회)  이해숙 목사 (영화문교회)		경기수원3지부  이해숙 원장 (이화성교회)  김경숙 목사 (한국중앙교회)		경기수원4지부  정보희 목사 (소망교회)  황은혜 목사 (열매교회)		경기수원5지부  한신영 목사 (세계로위임선교단)  김희선 목사 (베레교회)		경기수원6지부  김인옥 목사 (일본선교사)  이영희 목사 (로명교회)		경기수원7지부  김남식 목사 (베레교회)  윤병희 목사 (침례교회)		경기수원8지부  김강희 목사 (명성교회)  서민순 목사 (새빛교회)		경기수원9지부  조정숙 목사 (예배교회)		
경기화성지부  박은숙 목사 (소망선교회)  이수미 목사 (은총교회)		경기화성2지부  박현주 목사 (주님교회)  라도숙 목사 (인도교회)		경기화성3지부  박귀자 목사 (민복성교회)  이순정 목사 (천주성교회)		경기화성4지부  송복순 목사 (세동교회)  신명숙 목사 (성령교회)		경기화성5지부  함신순 목사 (함께하는교회)  이상옥 목사 (은총교회)		경기화성6지부  이정희 목사 (열매교회)  이애숙 목사 (열매교회)		경기화성7지부  최미미 목사 (온세상교회)  박정은 목사 (은총교회)		경기화성8지부  김정조 목사 (생명교회)  박은혜 목사 (대우교회)		경기화성9지부  최진희 목사 (예배교회)		
전남여수지부  김복자 목사 (열매교회)  김영심 목사 (성남영도교회)		전남여수2지부  이형옥 목사 (보성중앙교회)  박은혜 목사 (세계선교교회)		전남여수3지부  홍경화 목사 (성남교회)  김진희 목사 (성남교회)		전남여수4지부  정현숙 목사 (이화성교회)  최영자 목사 (사랑교회)		전남여수5지부  전종환 목사 (외국교회)  최영자 목사 (사랑교회)		전남여수6지부  김경희 목사 (부활교회)  이상숙 목사 (영광교회)		전남여수7지부  이영희 목사 (영광교회)  곽선명 목사 (민속문화교회)		전남여수8지부  최경숙 목사 (러시아선교사)  김강희 목사 (명성교회)		전남여수9지부  박인순 목사 (소망선교회)  김문자 목사 (그림날씨교회)		
부총재  김원식 목사 (동산교회)  정종현 목사 (성남영도교회)		부총재  라도숙 목사 (인도교회)  박성희 목사 (주영교회)		부총재  송복순 목사 (세동교회)  오달 목사 (삼전교회)		부총재  서민순 목사 (새빛교회)  전종환 목사 (외국교회)		부총재  최영자 목사 (사랑교회)  김경희 목사 (부활교회)		부총재  이상숙 목사 (영광교회)  이영희 목사 (영광교회)		부총재  곽선명 목사 (민속문화교회)  최경숙 목사 (러시아선교사)		부총재  김강희 목사 (명성교회)  박인순 목사 (소망선교회)		부총재  김문자 목사 (그림날씨교회)		
기도위원장  오순신 목사 (명성교회)  조항남 목사 (새하늘교회)		기도위원  한미발 목사 (성인교회)  유영명 목사 (경향동부교회)		기도위원  김보현 목사 (사랑교회)  전경필 목사 (뉴월드선교회)		기도위원  백승길 목사 (영광교회)  박영숙 목사 (노숙자교회)		기도위원  최창성 단장 (세계로위임선교단)  백준성 장로 (영광교회)		기도위원  김종민 장로 (주. KOM종교회)  오은희 회장 (행복한교회)		기도위원  임준호 회장 (주. 예수안교회)		기도위원  박희영 Piano  박희은 Violin		기도위원  박희와 Guitar		
단원  박희영 Flute  박주선 Flute		단원  이명희 Saxophone  한신영 Worship		단원  윤정순 Worship		단원  김현옥 대표  박명복 디자이너		단원  이향자 대표  신나라 단장		단원  김춘희 회장  박세미 회장		단원  김현희 회장		단원  박세미 회장		단원  박세미 회장		

e-mail : jang8468@yahoo.com
☎(070)7514-4996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3-2 302호